

제14대 김태호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장 취임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등록 2025.01.06 14:22:23



▲ 김태호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장.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지사 특성과 여건에 맞는 미래성장사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모든 사업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6일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제14대 지사장에 김태호 전 영주봉화지사장이 취임했다.

신임 김태호 지사장은 지난 2018년 농어촌에너지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태양광발전사업 등 공사의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이 농어촌 에너지 혁신사업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는 평을 듣고 있다.

김 지사장은 “현장 중심의 경영을 통해 지역 농업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농어촌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부산 출신으로 부산공업대를 졸업, 1995년 입사해 첨단기술사업처 첨단시설부장, 인재개발원 인재육성부장, 농어촌에너지처 에너지기획부장, 경기지역본부 기전기술부장을 역임하고 영주봉화지사장을 거쳤다.

업무에 있어 특유의 세심함과 꼼꼼한 일 처리로 이미 정평이 나있으며, 무엇보다 조직내 화합과 상호 배려의 문화 정착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화합형 리더'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